

프랑켄슈타인 : 현대의 프로메테우스

클 | 이 광 _ 계명대학교 화학과 명예교수 klee179@kmu.ac.kr

메리 울스턴크라프트 셸리(1797~1851)는 영국의 여성 작가이며 퍼시 비시 셸리의 두번째 부인이다. 그가 쓴 '프랑켄슈타인 : 현대의 프로메테우스' (1818)는 매우 널리 알려진 공포소설, 공상과학소설의 고전으로 꼽힌다. 이 소설이 생명력들 지니고 시대와 국경을 초월해서 오랜 세월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까닭은 퍼시 비시 셸리가 밝혔듯이 '인간 본성의 근본 원칙'을 다루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 원칙에 충실하다는 점에서 프랑켄슈타인은 고전으로서 흔들리지 않는 위치를 차지한다. 본문 중에도 잠깐 나오지만 1791년에 발표되었던 루이지 갈바니의 동물 전기의 실험은 당시의 학계학에서는 굉장한 이슈였다. 그 결과 전기를 사용해 시체를 움직일 수 있다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며,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을 전기로 되살리려는 실험도 흔히 행해졌다.

메리가 프랑켄슈타인을 쓰기 시작했던 1816년, 런던에 있던 퍼시 셸리의 부인 해리엇은 그해말 물에 빠져 자살했는데, 실제로 런던 학회에서 그녀의 시체를 가져와 정신이 드는 약을 냄새 맡게 하고, 세계 흔들고, 인공호흡을 하고, 전기 충격을 주어 되살리려 했었다고 한다. 이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메리 셸리는 바이런, 퍼시 셸리와 함께 스위스 제네바에 머무르고 있었을 때, 그들의 대화를

들으면서 '프랑켄슈타인'에 대한 착상을 얻었을 것이라고 추측되어왔다. 이 소설을 간결하게 소개한다.

자연과학을 배경으로 한 소설 프랑켄슈타인

빅토르 프랑켄슈타인의 생애는 이 소설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소년 빅토르는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중세 연금술사들이 쓴 구시대 의 책들을 탐독하며 사춘기를 보낸다. 빅토르는 대학에서 새롭게 현대과학을 공부하면서 자연철학 교수들이 가르치는 모든 내용을 몇 년 만에 완전히 통달하게 된다. 그렇지만 '생명의 비밀'에 푹 빠져 있던 빅토르는 조수의 도움을 얻어 드디어 끔찍한 괴물을 탄생시킨다. 시체의 여러 부분과 이상한 화합물을 조합한 육체는 신비한 불꽃에 의해 생명을 지탱하게 된다. 이렇듯 부자연스러운 탄생 과정으로 인해 그는 흉측한 외모를 가지게 된다. 괴물은 2m50cm의 큰 키에 엄청난 힘을 지닌 반면 갓난아기 같은 백지 상태의 의식을 지니고 태어난다. 그는 창조자인 빅토르에게 버림받은 뒤 자아를 확립해가며 사회에 동화하려 애쓰지만 사람들은 항상 그의 모습에 질겁한다. 그는 우연히 물에 비친 자신의 흉측한 모습을 보고, 자신이 단지 겉모습 때문에 인간들로부터 따돌림 당하게 된다는 것을



영화 프랑켄슈타인에서(1931)에서 괴물역을 맡은 보리스 카를로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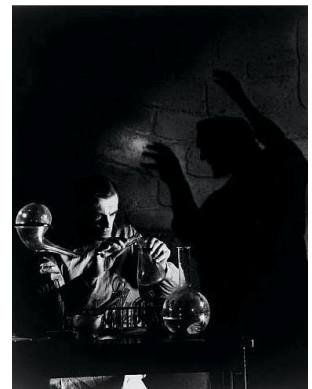
메리 울스턴크라프트 셸리, 런던국립초상전시관 소장



퍼시 비시 셸리, 런던국립초상전시관 소장



영화 프랑켄슈타인(1931, 감독 제임스 웨일의) 포스터



영화 프랑켄슈타인(1931)에서 프랑켄슈타인 박사역의 콜린 클리브



프랑켄슈타인의 괴물, 메리 셸의 원작에 의한 영화 프랑켄슈타인(제임스 호웰 감독 1931)의 괴물

깨닫는다.

괴물은 빅토르에게 복수하기 위해 그의 동생을 죽인다. 빅토르는 괴물의 외로움을 달래줄 여자 괴물을 만들던 중 그것을 파괴해 버리고, 괴물은 그 보복으로 빅토르의 가장 친한 친구와 갖결혼한 아내를 살해한다. 또한 괴물은 빅토르의 아버지를 포함한 두 사람의 죽음을 초래하게 된다. 빅토르가 자신의 피조물에 대해 심한 증오를 보이는 반면 괴물은 자신이 악한 존재만은 아니란 사실을 보여준다. 빅토르의 입을 통해 전달되는 괴물의 유창한 이야기들은 그의 섬세한 감성과 착한 마음씨를 드러내준다. 그는 가난한 농촌 사람들을 도와주고 익사할 뻔한 소녀를 구해주지만 흉측한 외모 때문에 보답은커녕 혐오와 충격을 받게 된다.

월튼은 북극행 탐사선을 지휘하다 얼음장에 갇혀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된다. 얼음이 풀리기를 기다리던 그와 선원들은 괴물을 쫓느라 쇠약해진 빅토르를 탐사선에 태우게 된다. 빅토르는 월튼에게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해주고 숨을 거둔다. 월튼은 마음의 친구로 받아들여지게 된 빅토르의 죽음을 애통해 한다. 복수심과 동정심 사이에서 헤매던 괴물은 양심의 가책에 시달리며 외롭게 최후를 맞는다.

치밀한 계산 속에 역동적으로 전개되는 소설과 영화에 익숙해진 오늘날의 관점에서 본다면, 고딕 소설과 맥을 같이 하는 이 소설의 사건들이 조금은 단순하고 직선적이며, 때로는 멜로드라마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러나 메리 셸리가 낭만주의 시대의 격정 속에 풀어놓은 인간적인 문제들, 창조의 고통, 배반, 소외, 복수, 생명의 창조 같은 문제는 첨단 과학시대라 할 수 있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프랑켄슈타인' 이 발표된 후 이 소설의 제목은 그 자체가 여러 가지를 뜻하는 대명사가 되었다. 프랑켄슈타인은 금기의 영역에 도전하는 과학자, 광적인 과학자는 물론, 인간이 창조한 괴물, 인조인간을 일컫게 되었으며, 최근에는 유전자 조작 식품까지 프랑켄슈타인 푸드라고 불리게 되었다.



영화 프랑켄슈타인(1931)에서 괴물과 대결하는 프랑켄슈타인

최초의 프랑켄슈타인 영화는 1910년에 토머스 에디슨이 만들었다. 2편의 독일 영화 진흙인형(1914), 마네킹(1916)도 유대의 민담에서 유래한 비슷한 주제를 다루었다. 보리스 카를로프가 괴물 역할을 맡은 할리우드 영화 프랑켄슈타인(1931)은 셸리의 원작 소설에 바탕을 둔 작품이었다. 이 영화는 대성공을 거두었으며 이 영화 이후 프랑켄슈타인에 관한 이야기를 변형시킨 수많은 영화가 만들어졌다.

최근에 크리스토퍼 굴딩이라는 영국의 학자는 프랑켄슈타인은 스코틀랜드의 실존인물을 모델로 했다는 주장을 내놓았다(2002년 5월 1일 '가디언'지 및 BBC 뉴스 온라인). 굴딩이 말하는 사람은 제임스 린드로, 소설 속에서 프랑켄슈타인이 여행했던 에든버러 출신의 천문학자이자 지질학자로 새로운 과학에 큰 관심을 갖고 있었다. 퍼시 셸리는 이튼 학교에 다닐 때 당시의 많은 엘리트들과 함께 이튼에서 가르치지 않는 현대과학에 대해 근처의 윈저 성에 살던 린드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다고 한다.

복제인간을 꿈꾸는 포스트모던 프로메테우스

1997년 프랑켄슈타인이 처음 세상에 소개되었던 그 영국에서 이언 월멧은 최초의 복제양 돌리를 세상에 선보였다. 소설 속에서 이름도 가지지 못하고 버림받았던 괴물과는 달리 그 양은 돌리라는 예쁜 이름과 함께 전세계인들의 커다란 관심을 한 몸에 받았다. 돌리의 탄생으로 복제인간의 가능성이 더욱 현실화되면서 법이 복제인간을 허용하든 말든, 그 창조 행위에 관한 윤리적 논의야 어떻든 복제인간의 탄생, 적어도 그 시도를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이 기정사실처럼 되어버렸다.

프랑켄슈타인처럼 인류의 꿈이라는 가면을 쓰고 자기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비밀스런 연구실에서 밤낮으로 생명 실험을 하고 있는 포스트모던 프로메테우스가 얼마나 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ST**